

大學을 졸업하는女性들에게

우선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나 그 여러웠던 입시경쟁을 이기고 입학의 영광을 차지했을 때 했던 축하의 동도만큼 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 사람의 생각인가?

물론 예외는 있다. 역경을 딛고 4년간의 대학과정을 마친 경우도 있을테니 말이다. 금년도 대학 합격자 중에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에 시달려야 하는 「버스」 안내원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2년에 마치고 정정교시를 거쳐 당당히 대학에 합격한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계속 양대양생 활동을 하면서 가계를 도우며 대학생활을 하겠다고 했다. 또 졸

들로서는 당연한 일로 돼있다 는 것이다. 그들은 꽤 고된 것도 배설의 욕구도 장간을 참아 내지 못해 먹고 싶다면 금방 먹으려 하고 싶은데, 대학교 주변에는 맥주집과 마탕가게가 즐비하게 있어 번잡하게 마련이며 대학의 화장실은 상상



朴 英 淑

〈主婦·前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박의 모양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속재만은 누구에게도 질세라 잘 해낸다는 것이다.

지나친 야망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가지 부인 못 할 사실은 요즘 대학생의 대부분은 이기심과 경쟁심의化身이며 평문교의 학생인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한동안 세상의 비난거리가 됐던 복부인종의 상당수가 대학 출신이었다는 것도 우연한 일 은 아니다.

수적으로 제사를 얹는다고 해도 오늘날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수가 극히 적은것은 무말 할것도 없다. 그들은 특혜를 받은 소수자다. 그들에게 사회가 바라보는것은 우선 뭐니뭐니

자신이 받은 教育의 일부는 이웃위한 일에 바치길

해도 그들이 받은 혜택을 이웃인 다수의 민중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라는 것인데다. 그들이 대학입시경쟁의 물투 하고, 그리고 대학생활을 즐기 고 있을 그때, 보다 많은 젊은 또래의 여성들은 그들의 출 거 되는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장시간의 노동으로 얻은 잔여가치의 고복을 적어야 했고 어떤 인력에서는 올라온 대우를 받 으려다 못과의 충돌까지 겪을 수 있다. 그들의 권유를 치마아 했다. 그 다수의 이웃들도 있 다는것을 의면하고 이 사회에서 고공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을 하자면, 직장외 활동을 단 전, 아니면 학업을 계속하건, 해택받은 소수자가 이웃사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합계 살 수 있는」 풍도를 마련하는 일의 의 는 하루분들을 말아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삶을 선택하거나 「유 행」 「그러니까」 「현수박」 없 으니까 「라는」 안전한 「의」 주 체의식과 책임의식이 절연된 행 동인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주의의 인식처럼 본인인 가정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가치창조의 始發點이며 올바른인간관계의 道場으로 만드는 일 도 이들 고공교육을 받은 이 성들이 할 일이다. 여성적 있 어서는 결혼하기까지의 전전다 리밖에 되지 못한다고 못마아 높은 사회적에서의 半人間이다. 「책」으로서의 글썽적인 지우를 참 아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끌어고치는 안도 다 혜택 받은 소수자의 책임이다.

크게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 르는 그들의 생활양식의 적응 하는 발전들을 융합하게 둘려 내일을 향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放手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980, 2月8日 金 (502)

報

日

PR

언부의 유언의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일 을 해보겠다고 그 포부를 말 하는 여성들도 있고 보면 속 의 농도가 다를 수 있겠다.

지난 여름 평문교자대 학의 한교수가 한판하던 일 이 기인이다. 몇명의 학생들과 함께 시골의 연구조사작업을 나 갔는데 학생들의 거처하는 방 안의 하도 열방이어서 보다못 해 집주인의 눈이 부끄러워 교 수인 자가 치워줄 수밖에 없 었다고 한다.

부포를 구성의 정도의 파 각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고등학교의 틀이면서부터 입 시준비를 하느라 공부의외의 다 루임은 으레 남이 해주는 한 경의 익숙해진 모습의 대학생